



HEADLINE NEWS

지하철 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삿포로 / 고베)

삿포로市 교통국은 내년 1월부터 市營 지하철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市 교통국은 전철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자제를 촉구하는 기존의 안내방송에서 탈피, 내년 1월부터는 '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 오작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휴대폰의 전원을 꺼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승객들에게 고지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삿포로市는 市營버스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전차의 경우 금년 9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고베(神戸)시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市營전철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승객들에게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고베전철(神戸電鐵), 산요전철(山陽電鐵), 한큐우(阪急), 한신(阪神) 등의 민영철도회사들도 이와 같은 조처에 적극 호응해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방송을 시작했다.

(mytown.asahi.com/hokkaido/news02.asp%3fkjij%3d81)

(mytown.asahi.com/hyogo/news02.asp%3fkjij%3d720)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신축주택 '에너지효율' 표기 의무화 (영국 도시)
- ② 도시경관에 이바지한 건축물에 「도시경관賞」 수여 (후쿠오카)
- ③ '주거 및 레저'를 주제로 한 도시설계 공모전 개최 (베를린)
- ④ 난방비 절감정보 제공 (베를린)

도시환경

- ⑤ 수요일에는 「Clean Ticket」 을! (동경)
- ⑥ 시가지 토양오염방지 법률안 추진 (일본 도시)
- ⑦ 디젤미립자 제거장치 都營버스에 시험장착 (동경)
- ⑧ '주정차 중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일본 : 奈良市)

도시교통

- ⑨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후보지역 제시 (동경)
- ⑩ 「도로통신표준안」 공개 (일본 도시)
- ⑪ 「입체도로제도」 활용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사업 시행 (동경)
- ⑫ 주차요금 징수에 「Octopus 카드」 사용 (홍콩)
- ⑬ 도심버스 이용촉진 위해 「100엔 버스」 운행 (후쿠오카)

사회복지

- ⑭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 수립 (워싱턴 D.C.)

행재정

- ⑮ 중앙도서관을 멀티미디어도서관으로 전환 (버밍햄)
- ⑯ '행정용어 순화운동' 전개 (일본 : 센다이市)

① 신축주택 ‘에너지효율’ 표기 의무화 (영국 도시)

영국 건설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 구매자들은 ‘에너지효율’을 주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효율’은 공간 및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AP)’으로 표기된다. 측정 범위는 1에서 10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www.press.detr.gov.uk/0010/0641.htm)

② 도시경관에 이바지한 건축물에 「도시경관賞」 수여 (후쿠오카)

후쿠오카市는 市가 가진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잘 표현한 건축물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데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후쿠오카市 도시경관賞」을 시상하고 있다. 이 賞은 쾌적한 자연 및 생활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987년 「도시경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정되었다. 수상작은 시민들의 추천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약 10건 정도 선정되며, 매년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www.city.fukuoka.jp/info/fuba/index.htm)

③ '주거 및 레저' 를 주제로 한 도시설계 공모전 개최 (베를린)

베를린市 도시개발국은 쾨페닉 지역의 스프레江과 불하이데 지구(전체면적 71,000㎡)가 전체 도시설계의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주거·레저·휴양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쾨페닉 지역 스프레江과 불하이데의 주거 및 레저'를 주제로 한 도시설계 및 경관계획 공모전을 열고, 지난 10월 4일 수상작을 발표했다.

1등 수상작은 교외의 특성을 보여주는 도시설계 개념을 기초로 140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가건물, 스포츠센터를 각각 1동씩 배치했다. 아울러 4층 짜리 연립주택을 조성해 주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하이데 지구 가로의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경관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녹지공간 확보와 아울러 방음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앞으로 이 설계안을 후속 경관계획의 기본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www.sensut.berlin.de/sensut/gestaltung/koepenick/index.shtml)

④ 난방비 절감정보 제공 (베를린)

베를린市 도시계획국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난방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市는 난방비가 화석연료의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량에 비례한다고 보고, 각 건물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질적 측면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인 건물 이용 및 에너지 사용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市 도시계획국은 소책자 「중앙난방주택용 난방법」 발간, 난방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에너지절약방법과 난방등급 설정 관련정보 제공, 정보지 「유가상승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처방안」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市는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30%까지 절감하고, 환경정확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berlin.de/home/Land/Pressemitteilungen/Senat/200010/20001019a)

5] 수요일에는 「Clean Ticket」 을! (동경)

東京都는 대기오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한해 都營 교통수단(지하철·버스·전차 등)의 1일 승차권을 할인한 「수요 Clean Ticket」 및 「버스 수요 Clean Ticket」을 발매하고 있다. 都營 지하철·버스·전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Clean Ticket」의 경우 700엔인 1일 승차권을 100엔 할인한 600엔에 판매하고 있으며, 都內 23구의 버스전용 승차권인 「버스 수요 Clean Ticket」의 경우 500엔인 1일 승차권을 50엔 할인한 450엔에 판매하고 있다. 都는 이 같은 조치가 대기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kotsu.metro.jp)

6] 시가지 토양오염방지 법률안 추진 (일본 도시)

일본 환경청은 시가지 내 공장 철거지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2월중에 「전문가 검토회」를 발족시켜 중금속 및 화학물질의 환경기준과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 오염정보 공개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내년까지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토양오염 규제법률은 농지에 국한되었는데, 그 대상지가 시가지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토회는 법률·경제·보건 분야의 전문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담당자 등 약 1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11. 19)

7 디젤미립자 제거장치 都營버스에 시험장착 (동경)

디젤차의 매연대책을 추진중인 東京都는 11월부터 저렴하고 소형인 美製 디젤 미립자 제거장치(DPF)를 제작연도, 제작사 및 운행노선이 각기 다른 都營버스에 시험 장착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장치는 매연 중의 입자상 물질(먼지)을 필터로 걸러낸 후 필터에 바른 촉매를 이용해 산화, 제거시키게 된다. 일반경유에도 유효한 이 장치는 일본 국내 제품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이다. 현재 都營 디젤버스 1,683대 중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미미하다.

(日本經濟新聞, 9. 20)

8 '주정차 중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일본 : 奈良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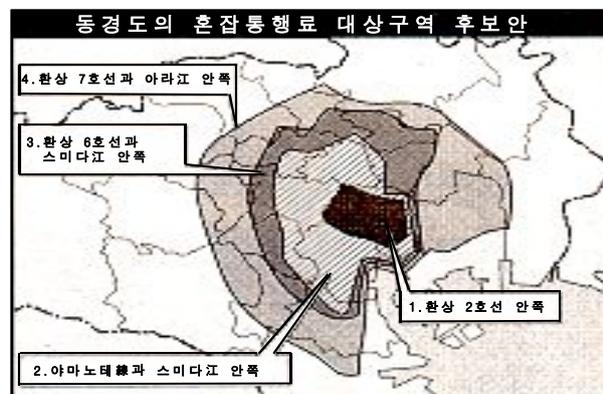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회전(idling)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료 소비와 CO₂ 배출 그리고 냄새 및 소음 공해를 줄여 나가고 있다. 주정차 중 공회전 금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14개 부현(府縣) 41개에 달한다. 과거 이 조례는 계도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강제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나라시(奈良市)의 경우, 주요사찰 및 관광명소 등지의 주차장을 지정, 주정차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운전'을 위해 급발진·급가속 금지,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유지, 트렁크에 적정한 짐 싣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9. 4)

9]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후보지역 제시 (동경)

東京都는 「혼잡통행료 검토위원회」를 지난 10월 18일 개최하고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4개의 후보지역을 제시했다. 검토위원회는 東京 중심부를 기점으로 직경을 달리하는 4가지 안을 마련했다(아래 그림 참조). 또한 검토위원회는 대상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都는 주민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10. 19)



10] 「도로통신표준안」 공개 (일본 도시)

일본 건설성 부설 토목연구소는 지능형 도로(Smart Way) 시스템 전개를 촉진하는 ITS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도로시스템 및 ITS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형식 및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통신 및 설계 방식, 메시지 형식 등이 상이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되는 ITS 플랫폼의 궁극적 목적은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상호 접속성, 구성요소의 호환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 공개된 「도로통신표준안」은 과거 5년간 설치된 ITS 시스템과 향후 15년 내에 도입될 시스템 중 20개를 추출, 이 시스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중 12개는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는 구상단계에 있다.

(www.moc.go.jp)

④ 「입체도로제도」 활용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사업 시행 (동경)

東京都는 東京 중심부를 순환하는 ‘환상 2호선 간선도로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도로 일부구간의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都는 반지하 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다.

입체도로는 연장 1,35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 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건물 3동, 연상면적 227,700m² 규모의 건축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복합적 입체계획제도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環狀第2号線 新橋・虎ノ門地區都市計劃のあらまし, 東京都, 2000)

④ 주차요금 징수에 「Octopus 카드」 사용 (홍콩)

홍콩 교통부는 주차미터기의 요금지불에 「Octopus 카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Octopus 카드」의 성능을 평가하고 새로운 요금지불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6개월간 시험 사용키로 했다. 재충전이 가능한 「Octopus 카드」는 1997년 9월 도입되어 현재 680만여 장이 사용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되던 이 카드가 주차요금 지불에 사용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info.gov.hk/td/eng/press/td_index.html)

도심버스 이용촉진 위해 「100엔 버스」 운행 (후쿠오카)

후쿠오카市 도심부의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일본철도(주)」는 1999년 7월부터 사방 1.5km의 도심부를 운행하는 모든 승합버스 요금을 100엔으로 하는 (종전요금은 180엔~220엔), 이른바 「100엔 도심순환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도입 목적은 급증하는 도심 방문객의 버스이용을 촉진하고 도심부의 회유성(回遊性)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

9개월 동안의 이용 현황을 보면, 버스승객 수가 운행 전보다 1일 평균 22,389명이 증가하여 약 78%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주말과 연말연시에는 평일보다 20~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일본철도(주)」 측은 성공의 요인으로 첫째, 100엔이라는 가격에 대한 호감과 지불의 용이함 둘째, 순환버스의 편리한 이용체제로 인한 신규수요 창출 셋째, 평일 통근 및 업무목적 교통수요 확대 넷째, 텔레비전 CM 등을 통한 「100엔 버스」 인지도 제고 등을 들고 있다.

(교통공학, 제35호, 교통공학연구회)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 수립 (워싱턴 D.C.)

워싱턴市는 지난 11월 20일 市 전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열린 「시민회의」 결과에 따라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14~21세 청소년들이 약 1,400명 참가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청소년들 스스로 그들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계발하며 ‘청소년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市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교육·고용 기회와 청소년·시민 참여 증진방안, 폭력·학대·범죄 감소 등을 위한 ‘청소년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12월에는 각계 전문가들과 「청소년 회의」 참가자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회의에서 「청소년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의하고 이 제안들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www.washingtondc.gov/mayor/news/2000/november/11_09_00_naa.htm)

④ 중앙도서관을 멀티미디어도서관으로 전환 (버밍햄)

버밍햄시는 멀티미디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멀티미디어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먼저 도서관 1층을 일러스트레이션, 슬라이드, 카세트테이프, CD, DVD, 비디오테이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대여해주는 멀티미디어도서관으로 꾸몄다. 대여가능건수, 대여가능연령, 대여기간 및 요금 등 대여조건은 매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입한 CD 및 DVD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시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유실과 놀이시설 등 유아 동반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www.birmingham.gov.uk/epislive/libpages.nsf/bf7dd363ba6fc4c38025677c00343688/04d6944516874a838025683d0037004d?OpenDocument)

④ ‘행정용어 순화운동’ 전개 (일본 : 센다이市)

일본 센다이시는 난해한 행정용어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행정용어 순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시 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 시민들에게 ‘행정문서 용어가 쉽다’는 말을 들은 직원이 7%인 반면, ‘어렵다’고 들은 직원은 3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용어가 많다(56%), 요점을 이해하기 어렵다(44%), 표현이 너무 딱딱하다(26%), 문자가 읽기 어렵다(19%), 외래어가 많다(17%) 순으로 나타났다.

시 직원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직원 승진시험에 알기 쉬운 문장 작성 테스트를 포함시키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쉬운 말 사용’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용어는 필히 주석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www.kahoku.co.jp/news/2000/10)